

지역 소식통

완주군, 새 학기 학교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 실시

완주군이 새 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 및 안전 문화운동에 나섰다. 지난 14일 완주군은 행정안전부, 환경부, 완주소방서,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키즈카페 중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서면에 있는 키즈카페에서 △키즈카페 운영실태 및 현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분야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환경·보건 분야 △식품·위생 분야 △소방안전 분야를 점검해 어린이 안전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자와의 면담을 통해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키즈카페 이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늘고 있어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자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키즈카페 이용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해 안전을 고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찾아가는 치매

관련 교육 운영 시작

김제시(시장 정성주)치매인식센터에서는 치매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찾아가는 읍·면·동 이·통장 대상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파트너 교육'을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15일 상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으로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치매인식개선 교육 △치매에 방교육 및 치매 O·X퀴즈 △치매파트너 교육 등을 진행한다.

이·통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곳곳에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을 널리 전파하고 치매파트너가 되어서 치매로 인한 곤경에 처한 치매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본 직무교육 실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5일 김제 금산사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원 1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양 문화재 안전관리 행동지침 등 문화재 안전경비원 기본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요 입무, 화재 등 다양한 재해로부터 현장 대응체력과 비상보고 등 긴급대응 방안, 소방시설 운용,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예방 활동과 발화요인을 사전에 적극 차단함으로써 사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조되었으며, 유사시 신속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행동 체계를 숙지하는 시간을 거쳐 참여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나성의 교육문화회장은 "봄철 화재 예방활동과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재 안전경비원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정부 신규 후보지 최종 선정

완주 국가산단의 새 역사

직접고용 7300명·고용유발 효과 2만3200명 등 만경강 기적에 '한발짝'

유희태 군수 "전북도·정치권 등 지원 큰 힘... 차질없는 추진에 굳정 집중"

완주군의 최대 현안인 '수소특화 국가산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8개월 만에 '완주 국가산단 시대'의 새 역사가 열리게 됐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가 시도별 대선공약에 반영된 19개의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종합평가에 나선 결과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이 신규 국가산단으로 최종 선정됐다.

산업평가와 입지평가 등 2대 분야에서 상위권인 1등급 이상 △지역성장 잠재력 △정책 타당성 △사업추진 용이성 등 7개 항목을 엄격히 따진 이번 평가에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은

각 항목별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국내 최초로 수소를 특화한 국가산단은 오는 2027년까지 산단 부지 조성을 위한 2562억원의 집중 투입, 봉동읍 일원에 165만㎡(50만평) 규모로 빠르게 조성될 전망이다.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까지 포함하면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총사업비는 6.27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완주군은 보고 있다.

완주군은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한 직접투자액은 72개 기업에 3조 840억원에 육박하고, 생산유발 효과도 5조9274억원에 달하는 등 총 투자 효과만 9조114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투자에 따른 직접고용 인원은

7380명에 달하며, 고용유발 효과도 2만3200명에 달하는 등 총 3만7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사업비 400억 원 규모의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선정에 이어 최종 6.270억 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까지 확정되자 "국가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기반 마련을 통해 만경강 기적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번 쾌거는 완주군의 특화된 수소 기반을 바탕으로 전북도와 정치권이 함께 뛰는 등 삼각공조를 이룬 중앙부처와 중앙정치권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과 집중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선정과 관련된 브리핑이 열린 가운데 유희태 완주군수가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석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의 지원사격에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은천 도당위원장 등 여야 전북 출신 국회의원이 집중지원에 나선 것이 큰 힘이 됐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소특화 국가산단 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수시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집요하게 설득하는 등 사례

를 다하는 총력전을 펼쳐 취임 8개월의 짧은 기간에 초대형 잭팟(jackpot)을 터뜨렸다는 분석이다.

유 군수는 "정부의 용단과 각계각층의 지원에 힘입어 완주군 역사상 첫 국가산단 조성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게 됐다"며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인 만큼 IH 등 사업사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산단 조기에 착공되고, 기업들이 자기에 입주해 수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정의 역량을 총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신동진 벼 공공비축 매입 제한 유예

농식품부, 농민 반발에 2026년까지 유예 결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신동진 벼 공공비축매입 매입제한 및 보급종 중단 계획을 2026년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나감에 동시에 수량성 위주의 재배 관행에서 탈피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확대하고 다수확 품종 재배를 축소하기 위해 신동진 품종에 대한 공공비축매입을 2024년부터 제한하고 정부 보급종 공급도 2025년부터 중단

할 계획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신동진 공공비축매입 매입제한 및 중단 계획에 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1999년 품종 개발 이후 오랜 기간 농가가 재배해온 점을 고려하여 보급종 공급과 공공비축매입 매입 제한을 2026년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앞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신동진 벼 매입제한 및 보급종 중단 반대 건의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이원택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없이 추진 될 수 있게"

완주군, 이광재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초청·공약이행 위한 정책특강 실시

완주군이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한 특강을 개최, 공약이행의 재검열에 나섰다.

15일 완주군은 분청 직원과 13개 읍면 직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빙해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이 본격적인 이행 궤도에 올라섬에 따라 공약 실천의지를 다지고, 담당자의 책임감을 제고해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민선 8기 성공적인 공약 이행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적응성·회복력의 시대로의 대전환을 강조, 변화하는 사회흐름에 맞는 공약 추진 방안 등을 조언했다.

앞서 완주군은 군정 3대 목표와 3대 프로젝트, 5대 중점과제에 맞춰 총 4대 분야로 재분류하여 실천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3대 비전과 관련한 공약



15일 완주군은 분청 직원과 13개 읍면 직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군청 1층 문화강좌실에서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빙해 매니페스토 특강을 개최했다.

은 16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5대 중점과제와 관련한 공약은 47개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의 원년(元年) 올해가 공약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수시로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 군민과의 약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약의 주인은 군민이고, 군민행복은 군정 최상의 가치이며 공약 이행의 성공요소는 공직자의 열린 마인드와 적극행정과 직결되어 있다"며 "히어관계가 얽혀 있거나 행정이라는 공약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 소통해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권익위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내달 7일 완주 방문... 생활법률·행정심판·노동 등 전문가 상담

완주군이 주민고충 해결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을 추진한다.

15일 완주군은 내달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평소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상담을 받고 싶지만 방문이 어려워 상담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분야별 전문 상담·조사관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처리해 주는 민원상담 제다.

이날 상담은 고충이나 불만을 겪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부패신고, 민·형사 생활법률, 행정심판 사회복지, 소비자피해,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은 오는 22일까지 완주군청 감사담당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예약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주민들도 4월 7일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평소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완주군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간담회

36개 회원종목단체 대상 실시

김제시체육회(회장 한유승)는 지난 14일 36개 회원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도 김제시 체육회 주요 사업 및 일정 안내, 회원종목단체 활성화 방안 등의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9월 1일부터 3일까지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당부하는 말을 전했다.



한유승 회장은 "공정과 상식을 통해 김제시 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의견들을 제시해 달라"며, "회원종목단체의 애로사항을 소통과 화합을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원종목단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영농폐기물 무료 수거 실시

내달 12일까지 집중수거기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 활동은 오는 4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수거대상 품목은 영농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차판막, 폐부직포, 폐비닐, 폐농기계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농민들이 영농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을 구분하여 뜬밭에 담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하여 일정량이 모이면, 영농폐

기물은 한국환경공단 계약업체가 수거하고 영농폐기물은 청소지원과에서 민간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집하장을 36곳(폐비닐 20, 폐기물 6, 임시 10)에 설치 운영하고 영농폐기물을 700톤 수거할 계획으로,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청소지원과 관계자는 "폐적한 농촌환경을 위해 영농폐기물을 분리배출하고, 대기오염 방지와 화재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 근절에 적극적으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민생경제 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내달 1일까지 접수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대시민 민생경제 협의체 운영을 위한 '김제시 민생경제 협의체 위원'을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해당 사업의 취지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생경제에 관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으로 시는 협의체 구성에 앞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다.

협의체 위원은 시민 2명, 관련 전문가 3명, 시민 2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시민 25명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중소기업인·근로자, 소상공인, 사회복지 및 교육·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와 그 외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시민으로 공개모집한다.

공개모집에 선정된 위원은 분기별 개최되는 회의 참여를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활동을 하게 되며, 회의 시 수립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김제시 민생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협의체를 통해 기존의 관 주도하에 경제정책 발굴이 아닌 시민의 참여로 경제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 민생경제 전반에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자원봉사센터, GGG 릴레이 캠페인 사전 교육

김제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14일 탄소중립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GGG(지구) 지키는 지평선) 릴레이 캠페인 사전 진행에 앞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봉사단체들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배우고 선정된 각 지역들의 특성과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한 뒤 봉사단체들이 지역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